광주·전남 택시·수상 운송업, 회복 속도 느리다

통계청, 2021년 운수업 조사

전국 매출 전년비 27% 증가…광주 3.3%·전남 9.6% 그쳐
광주 늘찬 배달업 54.7%·전남 주차장 운영 759.1% 급증

코로나19 타격을 딛고 회복하기 시작한 전국 운수업의 지난 2021년 매출은 1년 전보다 27% 뛰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택시 운송업과 수상 운송업의 부진으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운수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운수업체는 2만5768개로, 1년 전보다 7.4%(1781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운수업체는 1만1827개에서 1만3419개로 13.5%(1592개) 늘고, 전남은 1만2160개에서 1만2349개로 1.6%(189개) 증가했다.

전국 운수업체는 57만4568개로, 전년(55만2517개)보다 4.0%(2만2051개) 증가했다.

광주·전남 운수업체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매출액은 코로나19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국 운수업체 매출액은 2020년 152조원에서 2021년 194조원으로 27.4%(42조원) 뛰었지만, 지역 매출액 증가율은 광주 3.3%·전남 9.6%에 머물렀다.

서울 증가율이 43.8%(76조→109조원)로 가장 높았고, 대전(20.2%), 부산(20.1%), 대구(18.4%), 경남(15.8%), 전북(13.2%), 경기(12.7%), 전남(9.6%), 충북(8.9%), 세종(6.9%), 충남(4.5%), 광주(3.3%), 제주(2.9%), 강원(2.6%), 경북(1.9%), 인천(0.6%), 울산(-0.9%) 등 순이었다.

광주·전남 운수업 매출액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건 광주에서는 택시 운송업이 부진하고, 전남은 수상 운송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광주지역 택시 운송업체(개인택시 포함) 매출액은 252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9%(-441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광주 택시 운송업 영업비용은 16.4% 감소(2056억→1719억원)하고, 종사자 수는 3.8% 감소(8072→7765명)했다.

같은 기간 전국 매출액은 3.1%(7조8855억→8조1326억원) 늘고, 전남은 9.9%(1950억→1812억원)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이외 농산물 창고업(-37.0%),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4.4%), 냉장 및 냉동 창고업(-3.6%), 일반 창고업(-0.2%)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다.

전남에서는 수상 운송업이 전반적인 운수업 성장세를 깎아 먹었다.

전남 수상 운송업 매출액은 2020년 5038억원에서 이듬해 4550억원으로, 9.7%(-488억원) 감소했다.

살펴보면 수상 운송업 가운데 외항 화물 운송업 매출이 871억원에서 222억원으로, 74.5%(-650억원) 급감했다.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과 내항 화물 운송업 매출도 각각 33.1%, 15.4% 전년보다 줄었다.

이외 전남에서는 농산물 창고업(-59.8%), 물류터미널 운영업(-21.0%), 냉장 및 냉동 창고업(-17.9%), 전세버스 운송업(-17.2%),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16.4%),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업(-1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10.4%) 등의 매출 감소율이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지역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운송업은 광주에서는 '늘찬 배달업'(퀵서비스), 전남은 주차장 운영업으로 나타났다.

광주 늘찬 배달업 매출액은 350억원으로, 1년 전(226억원)보다 54.7%(124억원) 급증했다. 전남 늘찬 배달업 매출은 전년보다 3.7%(3억원) 늘어난 95억원으로 집계됐다.

늘찬 배달업체 수는 2021년 기준 광주 209개·전남 172개로, 전년보다 각각 8.9%, 22.0% 증가했다.

광주에서 1년 사이 매출액이 늘어난 운수업종은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49.2%), 전세버스 운송업(41.8%),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업(27.3%), 시외버스 운송업(19.5%),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13.4%), 주차장 운영업(12.5%) 등이 있었다.

전남지역은 주차장 운영업(759.1%↑), 화물 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4.1%),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36.8%), 화물 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23.6%),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20.6%) 등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내 대표 친환경 목조건축 기업 될 것"

비즈&피플 〈2〉최규웅 '휴인' 대표

불에 강하고 철골 능가하는 집성목재 개발…시장 이끌어
전국 최초 조달 혁신 시제품 인증…시공·설계 요청 쇄도

"700년 된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처럼 지역에 길이 남을 목조 건축물을 남기고자 합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친환경 목조건축 업체 '휴인'의 최규웅〈사진〉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산업용재인 목조는 어느새 철과 콘크리트를 능가하는 강도와 안정성을 가질 정도의 기술 발전을 이뤘다"며 "친환경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규웅 대표는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목조건축의 시장성을 확보하고 설계와 시공 시스템을 구축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휴인의 목조 건축 자재는 철골을 능가하는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 내화(耐火) 능력 면에서도 국내 최고로 꼽힌다.

최 대표는 "건물을 지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산업부문에서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그렇기에 목조건축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속에서 주목받으면서 공공건축 분야에서도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인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내 목조건축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목조건축업체로 입지를 굳혔지만, 사실 휴인의 첫 시작은 목조건축이 아니었다고 한다. 조경시설물 전문업체로 창업해 기술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 구상에 몰두하던 중 친환경 목조건축업이 최 대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외국에서는 10층 규모 이상의 건물도 목조건축으로 짓더라고요. 해외 견학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8년 전 구조용 집성목재를 제조하는 사업에 뛰어들게 됐죠."

호기롭게 신사업에 도전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목조건축은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데다, 인지도까지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R&D)에 나서며 제조기술력과 기술특허 확보에 매진했다.

그 결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조용 함판 코어(CLT)라는 집성재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국내 구조용 집성재 생산기업 중 전국 최초로 조달 혁신 시제품 인증을 받는 쾌거도 이뤘다. 기술력은 곧 경쟁력이 됐고 시공과 설계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다. 지금까지 최 대표가 연구와 기술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휴인은 지역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 목조건축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화순 이양농공단지에 최신 설비를 갖춘 신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최규웅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과 북미, 심지어 동남아에 비해서도 뒤처져 있다"며 "기술력을 더욱 끌어올려 친환경 목조건축의 전국적인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전국을 무대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지난 10일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총회에는 대표회원 100여명과 윤학수 중앙회장, 이병훈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협회 명예회장·고문 등이 참석했다.

박병철 회장은 "우리 건설업계는 생산체계 개편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회원 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건설환경 변화에 발맞춰 회원사들의 권익보호 활동과 업역 확대, 수주물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전문건설업계 권익신장 및 업역 증진에 공헌한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관계 공무원, 종합건설사, 협회발전 유공회원사 등 35명을 포상했다. 또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양진석 호원 회장, 광주경총 회장 취임

양진석〈사진〉 호원 회장이 오는 15일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회장이·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현 김봉길 회장(삼각에프엠씨 회장)이 이임, 제17대 회장으로 양진석 회장(㈜호원 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취임식에 앞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 의결하고, 노사협력대상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5대 단체 중 하나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인허가를 받아 노동관계 조정, 지원과 제휴를 통한 노사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확립, 기업경영의 합리화, 지역 경제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광주경총은 1981년 광주전남경영자총연합회로 시작해 2009년에는 전남경총이 분리됐으며, 300여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도농인력중개플랫폼'서 농촌 일손 찾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를 13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직자가 플랫폼에 일하고 싶은 지역과 농작업 종류, 경력 등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서 구인공고 등록 시 실시간으로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지역, 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의 플랫폼에 등록하면 필요 인력을 모집할 수 있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기능도 있어 구인농가와 구직자 간 일자리 연결도 가능하다.

근로자에게는 작업지 인근의 숙박과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의 농가일모아 시스템과 연계해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스템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71번째 공부방 선정 광주은행 조현기(왼쪽) 부행장이 최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우성지역아동센터를 찾아 71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으로 선정하며 학습 기기를 교체해주고 학용품을 선물했다. 〈광주은행 제공〉

뿌리산업 외국인 인력 3배 늘린다

산자부, 20일부터 접수

올해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이 작년의 3배 넘게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면서 12일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의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을 의미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제는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로 구분된다.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올해 지난해(120명)의 3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은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산업부는 400명의 선발 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비중을 높여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 근무 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해 선발하며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 역량을 갖춘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은행, 포용금융 확대에 연체율 상승세

카카오뱅크 지난해말 0.49%…전년비 0.27%p 늘어

지난해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체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가계신용대출 중 KCB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의 비중)을 늘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49%로 1년 전보다 0.27%포인트 상승했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0.22%에서 지난해 1분기 말 0.26%, 2분기 말 0.33%, 3분기 말에는 0.36%로 오르며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4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연체율이 0.13%포인트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지난해 말 0.36%로, 1년 전(0.22%)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여신 포트폴리오 내 중저신용 대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3분기까지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0.67%로, 2021년 말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22%포인트 오른 0.76%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54회)

당 첨 번 호						2등 보너스숫자
14	19	27	28	30	45	3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147,925,709	9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1,543,767	66
3	5개 숫자일치	1,739,827	2,714
4	4개 숫자일치	50,000	140,308
5	3개 숫자일치	5,000	2,407,955